

“국내 최대의 IT전시회, 「2008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KES 2008
Korea Electronics Show

- 국내 최대의 IT전시회인 「2008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윤종용 회장, 반도체협회 권오현 회장, 디스플레이협회 이상완 회장 등 주요 인사와 IT 업계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14(화) 10:30부터 경기도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었다.
- 개막식 행사에 이은 축하 Reception에서는 ‘제3회 전자의 날’, ‘전자부품 기술대상’, ‘정보디스플레이대상’,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시상’ 등이 진행되어 관련기업과 수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 이번 전시회는 한국전자전(KES), 국제반도체대전(i-SEDEX),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IMID) 등 3개의 전시회가 ‘한국전자산업대전’이란 타이틀로 공동 개최되는 첫 해로 “The Future of the Electronics Technology”라는 주제로 10.14(화)일 부터 10.17(금)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 국내 유사 IT 전시회의 중복개최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3개의 전시회가 동일 장소·기간 동안에 개최되었고,
- 이번 “2008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세계 25개국, 850여개 업체(2,200부스 규모)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서 올해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5대 전시회*로 발돋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 홍콩전자전(HKEF), 일본전자전(CEATEC), 싱가포르(Communic Asia), 대만전자전(Taitronics), 한국전자산업대전(Korea Electronics Grand Fair)
-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최대용량의 256GB SSD 반도체’, ‘폴 터치스크린 방식의 신개념 휴대폰’, ‘240Hz 구동 Slim&Light 디스플레이’, ‘세계 최초의 60nm급 초고속·초저전력 1GB 모바일 DDR&DDR2’ 등 다양한 세계 디지털 IT 신기술이 소개되었으며,
- ‘친환경 LCD TV’, ‘적외선 LED 카메라’ 등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향후의 녹색 성장을 주도할 제품들도 다수가 출품되었다.
-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의 주요 홍보 행사로,
- 그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여주는 ‘新성장동력관’이 개장되어 향후 10년간의 먹거리인 지능형 홈, 텔레매틱스, u-City, 의료기기, 스마트 의류 등이 소개되었으며,
- ‘Green IT 홍보관’도 마련되어 폐휴대폰 수거 범국

민행사,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LED 기술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 그 외에도 우수한 디자이너 발굴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대학생 우수 디자인 공모전’과 ‘Good Design 홍보관’과 차세대 디지털 리더 양성을 위한 ‘DiKi 3000’ 체험관도 개장되어 많은 참관객의 관심을 끌었다.

■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주요 업종별 주요기업 초청 무역상담회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참가 업체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전시기간 동안 개최되는 “디지털 전자 무역상담회”에는 호주 Hills Industry, OfficeWorks 등 Major유통사, 중국 Konka, Hisense 등 유명 대기업과 러시아와 인도유력기업 구매담당자가 초청되어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이루어졌고,

- “반도체 수출상담회”와 “디스플레이 무역상담회”도 16일부터 별도로 개최하는데, 미국의 Intel, 싱가포르의 Chartered Semiconductor, 중국의 ChangHong, 인도의 Videocon 등의 구매담당자들이 초청되어 1대1 무역 상담이 진행되었다.

■ 특히,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는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도 성황리에 개최되어 업체에서 기술과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국제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 포럼”이 개최되어 미래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차세대 3D디스플레이’

기술현황 및 표준화 전망을 한국, 일본, 대만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가졌고,

- “시스템반도체 컨퍼런스”도 개최되어 관련 업체 간에 기술 및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특히,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 가전, 자동차, 의료, 조선, 건설 등 주요 시스템 관련 대기업과 연구소 등이 대거 참여하여 시스템반도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첫 장을 열었다.

※ 퀄컴의 김제우 부사장이 4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양웅철 부사장이 차량용 반도체의 기술 동향에 대해 기조강연 실시

* 시스템반도체 : 기억·저장이 주기능인 메모리반도체와는 달리 논리연산까지 수행하는 반도체(CPU, DSP(디지털신호처리), CIS(이미지처리) 등)로 휴대폰, 자동차 등 완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좌우

- 개막식 행사 다음날에는 “미래 Ubiquitous 시대”를 맞이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향로를 조망하기 위하여,

- 미국 3M社, Steven C. Webster 부사장의 “The Next Wave of Display Innovation”, 미국 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Society of Information Display) Paul Drzaic 회장의 “Where’s my Flexible display?”, LG디스플레이 권영수 사장의 “New Value in Flat Panel Display” 등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어서 높은 관심이 보였다.